

자료문의 : 지경부 나노융합팀장 조정아, 신정현 주무관(02-2110-4784)

## 나노인프라, 중소기업 나노기술개발의 든든한 동반자

- '12년 나노인프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(나노융합상용화플랫폼활용사업) 설명회 개최 -

-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나노인프라기관\*의 첨단장비와 R&D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「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활용사업」의 1단계 성과와 2단계 계획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.

### ◆ 2012년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활용사업 설명회

- 일시·장소 : 2012. 4. 27(금) 09:30~17:30, 팔래스호텔(그랜드볼룸)
- 참석자 : 나노인프라기관(포항전주·광주·대구센터), 나노관련 기업, 나노융합분야 산학연 전문가, KEIT 등 약 150여명

\* 나노인프라기관 : 나노기술 R&D-산업화 지원을 위해 첨단장비·시설 구축  
-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(나노소자),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(光소자·부품),  
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(인쇄전자), 대구나노융합실용화센터(나노소재·부품)

- 동 사업은 지역별·분야별로 특화된 인프라기관의 장비·기술인력을 활용하여,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발·시제품제작과 시험생산 R&D까지 기술상용화를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,

- 지난 1단계('10~'11)사업에 (주)파워솔루션, (주)크레진 등 15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상용화공정개발에 성공함으로써, 향후 5년간 2,977억원의 매출과 1,189명의 일자리가 예상됨

### < 1단계 사업 성공사례 >

- ◆ (주)파워솔루션(포항센터) : 에너지 절감형 전력반도체 상용화 성공  
- '12년 100억 매출예상('11년 100만불 수출탑 수여), 70명 신규고용
- ◆ (주)크레진(대구센터) : 초전도성 복합소재개발 성공  
- '11년 80억 매출(78%증가), '16년까지 22명 신규고용

- 나노기술의 상용화지원이 동 사업에서 처음 실시됨에 따라, 1단계에서는 성공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으나,

- 금번 2단계('12~'14)에는 1단계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시장·고용규모 등 상용화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위주로 참여기업(16개)\*을 선정하여 5월부터 시작함

\* 포항센터(4개) : (주)파워솔루션, (주)아이엠헬스케어, 동양산업(주), (주)어플라이드카본나노  
전주센터(4개) : (주)네패스, (주)나노픽시스, (주)이미지랩, (주)JMI  
광주센터(4개) : (주)큐시스, 심포니에너지(주), (주)파이버프로, (주)윌소재  
대구센터(4개) : (주)맥스필름, 인오켄, (주)티에스엠, (주)엔트코리아

- 지난 3월부터 추진된 기업 수요조사 결과, 평균 경쟁률이 약 5:1로 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고,

- 1단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, 동 사업을 통해 나노기술 상용화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, 앞으로 기술력이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함

- 지경부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인프라기관의 첨단장비·기술·인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「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활용사업」을 통한 나노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